

# 산스크리트어 요람 꿈꾸는 항저우... 청장년층 '열광'

### 항저우불교련, 첫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 300여 명 지원 지원자 중 60명 선발 ... '읽기 쓰기' 프로그램 2주간 진행

중국 항저우불교연구소(Hangzhou Buddhism Institute, 이하 연구소)의 세미나실에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길 서원한 60명의 지식인들이 모였다.

'New China'는 "연구소가 지난 18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에 청장년층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며 "산스크리트어 읽고 쓰기에 초점을 맞춘 이번 캠프에는 중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고, 이 중에서 60명이 선발되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어를 어렵게 하는 것은 단연 동사의 변화 때문이다. 특정 동사의 경우 72가지의 시제 변화를 담고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입문자는 대부분 동사의 용례를 배우고 익히는 데 적잖게 곤혹을 치른다.

그러나 그런 난관도 연구소의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 교육생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60명의 교육생들은 2주간 진행된 '산스크리트어 교육'에 참여하기 위



중국 항저우불교연구소(Hangzhou Buddhism Institute)는 8월 18일부터 2주간 '산스크리트어 여름 캠프'를 실시했다.

### 전문직 등 지식층 대거 참여

### 3백여 명 신청자 몰려

### 불교·요가서적 등 심화공부 목적

### 관심은 UP, 교육여건은 '제자리'

해 휴가에 연차를 더해 캠프 일정에 맞추는 가하면 '초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열의에 차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전을 읽고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았다"는 교육생 팬 롱(Pan Long·27) 씨는 "중국의 경전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본 경전을 번역한 것인 만큼 이 고대어를 배우면 경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캠프에 참여했다"며 "항저우불교연구소 캠프에 참가

한 경험은 불교 공부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저우의 명문 저장대학(Zhejiang University)에서 의로기계열계학을 전공한 후 현재 글로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팬 롱 씨는 캠프 시작 3일 전인 15일부터 연구소를 방문해 이번 연수에 필요한 의복, 교재, 홍보물 등을 만드는 데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교육생 장 칸(Zhang Can·25) 씨는 "산스크리트어를 알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했다"며 "강사님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펼치며 문장을 읽고 해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하고 있는 장 칸 씨는 대학원에 진학해 중국의 고대문화를 연구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런 그가 고대 중국과 인도의 문화적 접점이었던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교육생 헤민(He Min·39) 씨는 "캠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사전을 들춰가며 (바가바드기타)를 읽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명문 런민대학(Renmin University)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국영기업체에 근무하고 헤 민 씨는 하루라도 빨리 요가 지도자로 활동하길 희망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는 요가 현장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언어이다. 요가 서적 대부분 영어로 서술되어 있지만 그 키워드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즉 요가 관련 전문서적을 탐독하며 그 진의를 알아 깊이 수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New China'에 따르면 중국은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유서 깊은 연구사를 가지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본 경전을 중국어로 역경했던 세월만 어림잡아 1,000년이다. 산스크리트 '슈냐'가 '무(無)'에서 '공(空)'으로 정착되는 데만도 지루가참에서 구마라까지 자그마치 2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릴 정도였다.

그런데 중국의 산스크리트어 연구사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 맥이 끊긴 지금의 수준은 미미하다. 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산스크리트어를 교육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후반이다. 그러나 교사도 교재도 부족해 70여년이 지난 지금 산스크리트어 교육 여건은 여전히 미미할 따름이다.

"항저우불교연구소는 매년 2차례 4개월 과정의 산스크리트어 전문 과정을 진행하며 그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한 갱 씨아오(Gang Xiao) 부소장은 "이번 여름 캠프는 '산스크리트어의 읽고 쓰기 교육'에 주목해 처음 개설한 기초 과정인데 의외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컸다"며 "이러한 노력과 관심이 쌓여간다면 이곳 항저우는 중국에서 '산스크리트어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캄보디아, 佛 유물 훔친 남성5명에 '7년 구형'

### 부처님사리 7구 절도혐의 8월 27일 선고

캄보디아 대법원이 8월 27일(현지시간) 부처님 유물이 담긴 황금 항아리를 훔친 남성 5명에게 7년 구형을 선고했다.

'Bangkok Post'는 8월 27일 "2013년 유물 항아리 도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후 국교가 불교인 캄보디아에서 전 국민이 범인 수색작업에 나섰다"며 "2014년 2월 캄보디아 당국은 우동(Udong) 왕실 사원에서 130km 떨어진 다케오 남부 지방의 한 집에서 항아리와 유물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Bangkok Post'는 "사건이 발생한 칸달(Kandal) 지방법원은 범인 남성 5명을 모두 검거했으며, 범인 중에는 왕실 사원을 지키던 4명의 경비요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세이 삼포르스(Say Samphors) Serey 판사가 7년 구형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난당한 부처님 유물들은 1950년대 부처님 탄생 2천 5백년을 축하하며 스리랑카에서 캄보디아로 보내졌다.

그 후 2002년 노로돔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왕은 수도 프놈펜(Phnom Penh)에서 우동 지역으로 사리를 이송한 뒤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 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美 외곽농장 '불교 교실' 佛心 일구다



마크 윈우드(왼쪽), 캐시 아담스(오른쪽) 법사

### 마크 윈우드·캐시 아담스 법사, 불교 교실 운영 5에이커 농장서 주민과 소통하며 법회, 명상, 봉사 실천

미국의 소도시 먼로(Monroe)에서 1년째 불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제카법사들이 화제다.

'Herald Net'는 "미국 워싱턴 주 소도시 먼로에서 마크 윈우드(Mark Winwood)와 캐시 아담스(Kathy Adams) 법사가 먼로 외곽의 농장에서 불교 교실을 운영하며 지역에 불심을 일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플로리다 주에서 워싱턴 주로 이주한 마크와 캐시는 소도시 먼로의 외곽에 농장을 구입하고 겸손·친절·관대를 모토로 '불교 교실'을 개원,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데 노력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는 마크 윈도우 법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방법

으로 사원이나 센터 보다는 '교실'이라는 현판을 내걸고 낮선 교리 보다는 일상의 주제로 소통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크 윈우드 법사에게 불교란 '제2의 인생'이다. 그는 과거 법률자문 IT회사인 'law.com'을 창업, 운영했던 CEO였다. 그러나 IT'거품이 꺼지면서 닥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던 중 티베트 불교에 귀의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은 세속의 일을 접고 티베트 불교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재정, 관계, 교통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서로 나누길 바랐다"는 캐시 아담스는 "먼저 아픔을 나누고 그 해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주민들이 호응했다"며 "불교의 자비 사상과 주민의 개인 일상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캐시 아담스 법사는 지난해 플로리다 주에서 도반으로 만난 마크 윈우드 법사와 약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워싱턴 주 먼로 시에서 함께 포교에 나서자는 마크 윈우드의 제안에 따라 이곳에 정착했다.

"2005년에 인도 다람살라를 여행하며 바라본 티베트 스님들의 겸손·친절·관대한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캐시 아담스 법사는 "먼로 주민들이 불교 교실을 방문할 때마다 인도에서 보았던 티베트 스님을 기억하며 만나고 있다"며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부처님과 그 지혜와 자비를 올곧이 심을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Herald Net'는 "마크와 캐시 법사는 5에이커 대지에 마련된 불교 교실에서 명상, 교리, 강독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대중법회도 봉행하고 있고, 지역 불우 가정을 돕기 위한 재능실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먼로 시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방콕 폭탄테러 피해자 추모제 올리는 불교 승려들

불교 승려들이 지난 8월 21일 방콕 폭탄 테러가 발생한 에라완(Erawan) 신사 맞은편 광장에서 개신교, 힌두교, 스키도교, 무슬림교와 함께 종교합동추모제를 올렸다. 이에 대해 'Daily News'는 "이 자리에 정부 관계자 및 외교관들이 참석해 헌화의식에 함께했다"며 "사람들이 복적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하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8월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도심에서 폭탄이 터져 현재까지 20명이 숨지고 약 1백 20여 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사고발생 15분 전 벤치 근처에 인근 CCTV에 찍힌 용의자 영상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거에 난항을 겪으며 현상금은 약 3백만 바트(한화 약 1억 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박아름 기자 <사진출처=Daily News>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공고 제 20150827-1호

## 시설공사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내용)

연번	사업명	위치
1	봉원사 대방(염불당) 단청공사	서대문구 봉원동

사업비	사업량	공사기간
175,000,000원	단청공사 목공사 미장공사	90일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15. 8. 25. (목) 17: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15. 8. 31. (월) 12:00  
4 견적제출 개찰일시 : 2015. 8. 31. (월) 15:00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중무소

5 입찰참가자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중 단청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계약)의 자격이 계속유지 되어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015년 8월 27일

###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체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통하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면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엘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엘빙」을 치세요.

## 관음수련법

1 관음법은 기원하고 천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수련하고 정진하면 인간의 몸 통로가 열려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초첨단 음파공학 진리이며, 현대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초첨단 의학적 진리입니다.

2 관음수련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통증, 신병, 변비, 소화불량, 빈혈 및 다이어트,20대 몸매, 피부미용효과, 목소리 교정 및 트림 등등

3 관음수련의 종교적 성취  
(1) 좌측(뇌) 통로가 열리면 - 지혜의 문이 열려 (문수보살)  
(2) 우측(뇌) 통로가 열리면 - 보리심이 일어나 (관세음보살)  
(3) 중앙(뇌) 통로가 열리면 - 행동하는 힘이 생겨 (보현보살)  
(4) 사지 통로가 열리면 -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약사여래)  
(5) 오관이 모두 열리면 육신통을 성취하며 이마에 제3의 눈이 열립니다.

4 관음수련의 일반적 성취  
(1) 초인적인 운동선수, 골프 등등  
(2) 시인 및 학문적 재능  
(3) 가수 및 예술적 재능  
(4) 팔정도 의 사고와 의식이 저절로 생겨나 올바르게 바른 인격수양  
(5)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을 예방하며 건강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음.

5 관음수련은 불자가 되기 위한 수련이 아니라 관세를 보살 -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입니다. 불법의 위대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03-9번지  
전화 031)572-6118 제석천 만덕사 관음 합장

## 대한민국 새로운 장래문화 분재공원

특허권취득! 화분장묘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없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으시다.

화분장묘이란?  
연꽃재대화분묘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점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상호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업방안.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현 수목장비용 300 ~ 500만원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제,기타

화분장묘 특허권자: 김성만 / 특허번호: 제10-1467668  
상담전화: 054)331-9303,010-8458-3310  
www.화분장.kr